



의안번호	제 2011 - 10호
의 결 연 월 일	2011. 4. 18. (제33차 회의)

보
고
안
건

1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 중 누락 부분 보고

제 출 자	상임위원
-------	------



목 차

I. 뇌물범죄 관련	1
1.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 선택 가능 추가	1
2. 형량범위 특별 조정 중 단서 삭제	1
3. 동종경합범 가중방법 규정 중 단서 추가	1
II. 성범죄 관련	2
1. 수정된 성범죄 양형기준(2010. 7. 15. 공개)의 서술식 기준 중 일부 규정 삭제	2
2.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 선택 가능 추가	2
III. 강도범죄 관련	3
1.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 선택 가능 추가	3
IV. 횡령·배임범죄 관련	3
1. 형량범위 특별 조정 중 단서 삭제	3
2. 동종경합범 가중방법 규정 중 단서 추가	4

I. 뇌물범죄 관련

1.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 선택 가능 추가

- “[양형인자의 평가원칙]의 2. 선고형의 결정방법”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

○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.

- ☞ 뇌물수수의 제6유형(뇌물액수가 5억 원 이상)의 경우 가중영역의 권고형량이 11년 이상, 무기로 규정되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
- ☞ 수정된 살인범죄 양형기준, 2기 양형기준 중 약취·유인, 사기범죄에도 동일 규정 존재하므로 일관성 유지 위해서 추가 필요

2. 형량범위 특별 조정 중 단서 삭제

- [공통원칙] 중 형량범위 특별 조정의 제1항 중 아래 부분을 삭제

○ 상한을 1/2까지 가중한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.

- ☞ 수정된 살인범죄, 성범죄, 약취·유인범죄 등의 경우, 특별 조정 결과 25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음
- ☞ 개정 형법을 반영한 수정 양형기준이나 2기 양형기준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고, 뇌물범죄는 1/2 가중해도 25년 초과하는 경우 미발생

3. 동종경합범 가중방법 규정 중 단서 추가

- [다수범죄 처리기준]의 3. 동종경합범 가중방법 중 제2항을 아래

와 같이 변경

- 다만,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/3을 감경하고,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/2을 감경하되, **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.**

☞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의결된 기준과 일관성 유지 필요

II. 성범죄 관련

1. 수정된 성범죄 양형기준(2010. 7. 15. 공개)의 서술식 기준 중 일부 규정 삭제

- “1. 일반적 기준의 가. 강간죄(13세 이상 대상)” 중 형량기준표 아래 서술식 기준에서 아래의 내용을 삭제

○ (가중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선택 가능, 이하 같음)

☞ 개정 형법을 반영한 수정 양형기준이나 2기 양형기준과 균형을 맞출 필요 ⇒ **25년을 초과하는 경우** 무기징역을 선택하는 것으로 통일함이 타당

☞ 형량기준표상 특강(누범)에 해당하여 상한을 1.5배 가중하더라도 **25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삭제함이 타당**

2.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 선택 가능 추가

- “[양형인자의 평가원칙]의 2. 선고형의 결정방법”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

○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.

☞ ‘13세 미만 대상 강간상해/치상’은 가중영역의 권고형량이 **11년 이상, 무기**로, ‘강간치사/강제추행치사’는 가중영역의 권고형량이

12년 이상, 무기로 각 규정되어 25년 초과하는 경우 발생

- ☞ 수정된 살인범죄 양형기준, 2기 양형기준 중 약취·유인, 사기범죄에도 동일 규정 존재하므로 일관성 유지 위해서 추가 필요

III. 강도범죄 관련

1.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 선택 가능 추가

- “[양형인자의 평가원칙]의 2. 선고형의 결정방법”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

○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.

- ☞ ‘강도치사’의 경우 가중영역의 권고형량이 11년 이상, 무기로 규정
- ☞ 수정된 살인범죄 양형기준, 2기 양형기준 중 약취·유인, 사기범죄에도 동일 규정 존재하므로 일관성 유지 위해서 추가 필요

IV. 횡령·배임범죄 관련

1. 형량범위 특별 조정 중 단서 삭제

- [공통원칙] 중 형량범위 특별 조정의 제1항 중 아래 부분을 삭제

○ 상한을 1/2까지 가중한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.

- ☞ 수정된 살인범죄, 성범죄, 약취·유인범죄 등의 경우, 특별 조정 결과 25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 선택할 수 있도록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음
- ☞ 개정 형법을 반영한 수정 양형기준이나 2기 양형기준과 균형을 맞출 필요 있고, 횡령·배임범죄는 1/2 가중해도 25년 초과하는 경우 미발생

2. 동종경합범 가중방법 규정 중 단서 추가

- “[다수범죄 처리기준]의 3. 동종경합범 가중방법” 중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

○ 다만,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/3을 감경하고,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/2을 감경하되, **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.**

☞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의결된 기준과 일관성 유지 필요